

축 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3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의 한결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삶의 지혜를 행동으로 일깨워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원로 어른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민섭 회장님과 금일읍 임규성 분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광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인복지사업과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훌륭한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부터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효사상을 계승발전 시켜오며,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일읍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핵가족화가 되면서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주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나의 가족과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우성자, 박인철, 김양훈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읍 노인의 날 행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